

성별	남	나이	62세	직종	원단 제직기 조작	직업관련성	있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----	-------	----

### 1. 개요

안○○은 1976년부터 직조기계 구리 및 원단 생산업무를 담당하였고 최종 사업장인 B업체에서 2010년 4월 퇴사 하였다. 최근 1~2년 전부터 TV소리를 높게 하고 말소리를 크게 하는 증상이 심해졌다. 2010년 입사하기 위해 채용 신체검사 과정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았다.

### 2. 작업환경

안○○은 1976년부터 약 30여 년간 직물 공장에서 일을 해왔고 주로 원단기계의 수리와 조작업무를 맡아왔다. 원단기기 업무는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이며 청력보호구는 2009년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.

B업체는 원단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약 100평 정도의 완전히 트인 한 공간에 원단 제직기 기계들이 14대가 있다. 2010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은 92.8 dB(A)로 소음노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.

### 3. 의학적 소견

술은 1~2회/주, 1-2잔의 소주와 막걸리를 마시며, 담배는 10여 년 전 금연을 하였다. 7살 때 우측 대퇴부 골절이 있을 뿐 사고력이나 당뇨, 고혈압 등의 질병력은 없다. 소음교육과 특수건강진단 등은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.

### 4. 결론

안○○ 의 감각신경성 난청은

- 30여 년 간 직물업에 종사함으로써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(평균 8시간 누적소음 노출량 95dB(A)이상),
- 청각도상 감각신경성 난청(양측) 보이고 있어,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.